

---

# 시선의 정치(서용선의 작품세계)

정영목 저, 학고재, 2011



강병직

---

강병직은 서울대 서양화과와 서울대 대학원 미술이론전공을 마쳤으며, 일본의 동경예술대 대학원과 동경대 대학원의 연구생 과정 수료 후 서울대 교육학과에서 미술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영재들의 특별한 놀이터』, 『미술영재교육학』이 있으며, 역서로는 『에도시대의 일본의 미술』과 『조지아 오키프』가 있다.

과거 문학에 대해 미술이 봉사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던 중 미술은 문학에 대해 봉사하던 이제까지의 관계를 벗어나 홀로 독자적인 가치를 찾고자 도전을 시작하였고, 그것은 모더니즘이라는 사조와 함께 커다란 물줄기로 나타난다. 적어도 필자가 배워왔고, 알고 있기로는 미술이 문학에 대해 봉사해온 배움은 있으나, 문학이 미술에 대해 봉사해온 기억은 찾기 힘들다. 물론 미술작품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은 예외로 해야겠지만....

미술 작품에 대해 글을 쓰는 행위를 미술 비평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미술 비평은 문학인가? 이 책의 마지막 장을 접을 때, 불쑥 떠오른 질문이었다. 분명 내가 읽은 것은 미술 비평이었으나, 뭔가 좀 다른, 긴 여운이 남는, 마치 인간의 부조리와 전쟁, 현실의 모순에 대한 한 편의 다큐멘터리 작품을 보는 듯 했다. 분명 한 미술가의 작품 세계가 전개되었고, 그에 대한 글이 동반되었다는 점에서 미술 비평이고, 작가 평문일진데, 마지막 장 너머의 빈 종이 위로 ‘한 미술가의 영역을 넘어, ‘우리’가 겪는 부조리와 전쟁, 그 속에서의 버둥대는 ‘인간’의 실존이 떠올려진 것은 어인 일인가? 그 것은 딱 더도 덜도 아닌 미술비평으로서의 ‘문학’이었고, 그 문학은 서용선이나 정영목이 아닌 서용선 그림 ‘과’ 정영목의 글이 하나로 승화되어 창출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올림’이었다. 서용선이라는 작가와 작품 위에 더해진 정영목이라는 비평가의 목소리는 마치 살가도 (Sebastiao Salgado, 1944-)의 다큐멘터리 사진집을 접하는 듯한 비장미까지 느껴졌다고 한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이 책은 기본적으로 서용선이라는 한국 현대미술의 걸출한 작가와 작품에 대한 비평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작가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지 않으며, 그럴 생각도 없어 보인다. 저자는 책의 첫 머리에서 이렇게 묻는다. “한국 현대 미술에 과연 역사화(History Painting)라는 장르가 존재할까?”

이 물음은 이 책 <시선의 정치: 서용선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화두가 된다. 歷史란 의미 있긴, 무의미 하건 과거에 벌어진 실제적 사건이며, 그 것이 歷史가 되는데에는 당대의 ‘정치’적 작동이 관여한다. 그리고 정치의 작동 뒤에는 저마다 바라봄의 차이=視線이 숨겨져 있으며, 그 시선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왜곡되기 마련이다. 그로 인한 시선 간의 전쟁과 충돌에는 화해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 긴장감은 금방이라도 호흡을 멎게 할 것만 같다. 이 클라이막스에서 서용선의 작품은 사유와 치유로 등장한다. 아니 책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갈등의 정점에서 사유와 치유에 관한 서용선의 작품을 등장시킨다. 미술 비평문에 서사구조라니,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 아닐 수 없다.

서용선은 “1980년대부터 회화의 서술적 역할에 관한 조형적 탐구를 계속해 온 작가”, “그림과 언어의 상호작용에서 정치·사회적 현상에 주목”한 작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그가 좀 더 분명한 색채로 한국 현대 미술사에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은 역사화라는 장르에 관해서였다. 책은 그러한 서용선을 “기존의 역사화-군사 문화의 유산으로 거의 관제 수준이거나 교과서적 사관을 선전하는 기록화 수준-가 갖는 한계성을 극복”한 작가로 평가한다.

그러면서 역사화가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역사가 항상 당시의 시대정신에 의해 끊임없이 비판받으면서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역사화 역시 특정 정권의 고정된 이념에서 벗어나 역사에 대한 작가 개개인의 주관적인 해석과 느낌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과 정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단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그린다고 해서 역사화가 아니라 고정된 이념에서 벗어나 역사에 대한 작가 개개인의 주관적인 해석과 느낌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새로운 정서를 제시할 때 진정한 역사화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노산군-단종 연작에 나타난 서용선의 작품 세계가 이러한 역사화의 가치를 충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렇다면 역사화는 리얼리즘과 다른 것인가?

저자는 책의 전반부를 읽고 난 뒤의 필자의 이 같은 의문을 미리 짐작이나 한 것일까? 이 책의 저자는 그 뒤를 이어 역사와 신화는 상호 종속적이라고 하면서, 서용선이라는 작가가 고대의 신화와 전설 속에서 어떻게 역사의 원형을 찾는가를 드러내준다. 신화란 역사에서 발생한 사회나 집단의 무의식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때, 서용선이 주제로 다룬 중국 고대신화 작품은 당대의 역사적 요소들과 무의식, 욕망이 내재된 또 다른 역사화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이 책이 드러내는 서용선의 역사화는 단지 과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오늘의 모습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신화이건 전설이건, 역사이건 그 속에는 인간의 현실에 대한 지성적 자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리얼리즘적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이 신화와 전설에 한국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덧붙인 것은 서용선에게 있어 역사화와 리얼리즘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싶다.

곧이어 책의 주제는 한국의 오늘날 현실-주로 도시-로 옮겨지며, 다시 미국과 유럽의 현실-주로 도시-로 확대된다. 역사화란 바로 오늘의 현실적 자화상임을 보여주는 이 대목은 필자와의 동시대적 현실이라는 점에서 화면의 전개는 더욱 리얼하다. <냉장

고 선정 03:22>, <숙대입구 07:00-09:00> 등의 마치 초침(秒針)이라도 재는듯한 제목의 작품들은 글을 읽는 독자의 뇌압을 가파르게 증가시킨다.

책은 어느 덧 말미를 향해 달린다.

그곳에서 서용선의 미술은 사유와 화해의 사회학으로 안착되며, 책을 읽는 독자의 마음에도 드디어 사유와 화해의 심이 찾아온다. 저자가 말하듯, 철암이라는 마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딘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만큼 우리에게는 소외된 시공간이었다. 소외된 이 지역에서 서용선은 ‘느슨하고 별 계획없는’ 사회미술을 전개한다. 그러나 그 계획없음 속에 작가는 3년을 넘는 시간의 사유와 행동을 투자하게 된다. 거창한 웅변도, 대단한 프로젝트도, 구호도 드러나지 않은 이상한 ‘사회미술’과 함께.

이러한 서용선의 이상한 미술에 대해 저자는 우리 현대 미술사에서 미술이 그 주변에 얽힌 부조리와 아픔의 시공간을 같이 사유하고 사회학으로서 미래로 다가갈 수 있음에 대해 조심스러운 기대를 제시하면서 책을 마무리 한다.

이 책의 구조는 기존의 미술비평문을 생각할 때, 흔하지 않다. 통상 미술비평문이라 하면 작품을 연대기적으로 진행하면서 그에 대해 평문을 쓸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연대기적 서술 대신 ‘시선의 정치’(2011년) 작품을 ‘철암 그리기’(2002) 작품보다 앞서 배치하는 등, 작품의 시간적 순서를 의도적으로 거스르고 있다. 이는 연대기가 아닌 의미를 주제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그 점에서 이 책은 문학으로서의 서사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 책은 분명 미술 비평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비평문의 딱딱함이나 완고함이 없으며, 비평가의 잘난 체 함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단락과 단락, 문장과 문장, 장과 장 사이에는 독자가 잠깐 쉬고 생각할 수 있는 미묘한 여운의 쉽터마저 마련되어 있다. 빨리 생각하라고 재촉하지 않으며, 글의 논리에 빨리 동조하라고 독촉하지도 않는다. 서용선이 작품을 통해 ‘허허실실’ 전략을 보여주었다고 쓴 저자 그 자신이야말로 ‘허허실실’의 글쓰기 전략을 사용한 것은 아닐까?

미술에 대해 깔끔하고 세련된 톤이 아니라 가끔은 중저음의 톤과 묵직한 화강암과 같은 견고함 같은 것이 그리워질 때, 이 책은 그리움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문학으로서 미술비평의 가능성은 별미이다.